

해동고승전 안함전 연구

A Study on Anhamjeon of Haedong Kosung Chon

저자 (Authors)	곽승훈 Kwaak, Seung-hoon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탐구 17 , 2014.8, 117-145(29 pages)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17 , 2014.8, 117-145(2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탐구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78692
APA Style	곽승훈 (2014). 해동고승전 안함전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17, 117-14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15 10:0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해동고승전』 안함전 연구

곽 승 훈*

- I. 머리말
- II. 안함전 찬술 내용
- III. 각훈과 일연의 안함·안홍 인식
- IV. 각훈의 찬술 의도와 의의
- V. 맺음말

【국문초록】

『海東高僧傳』安含傳은 「安含碑」와 「安含傳」으로 추정되는 전기물을 바탕으로 覺訓이 찬술하였다.

安含은 601년 중국에 유학하여 5년간 공부한 뒤, 인도 승려 毘摩羅 등과 함께 귀국하여 佛法을 전한다. 이후 신라에서는 인도로 佛法을 공부하러 가는 승려들이 많이 나왔다. 이에 각훈은 안함을 弘法을 펼친 聖人으로 평가하였다.

안함이 앞날을 예견하는 『讖書』를 지었는데, 모두 국왕의 權威와 국가의 安危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각훈은 『讖書』의 내용이 모두 명확하게 맞아들었다고 하면서 안함의 預知力을 높이 평가하였다.

각훈이 안함전을 찬술한 의도는, 高僧 安含의 預知力을 통해 신라가 국가불교로 나아가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는 불교의 위대성을 선양하는 한편으로, 국가를 위해서는 護法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一然은 『三國遺事』에 안함과 安弘에 대한 전기를 立傳하지 않았다. 이는 일연이 새로운 자료를 얻지 못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각훈이 「안함비」의 내용을 토대로 안함전을 찬술하여 전한 것은 신라불교사의 이해는 물론 史學史上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주제어 : 『海東高僧傳』, 安含, 安弘, 『讖書』, 『三國遺事』, 「安含碑」

* 목원대학교

I. 머리말

고려 후기 覺訓이 찬술한 『海東高僧傳』의 내용에 대해, 一然이 『三國遺事』에서 신랄한 비판을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해동고승전』을 잘 살펴보면, 선학들의 주장들처럼 사료에 대한 비판 없이 사료들을 集成하여 각훈이 서술하였다고 하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 역시 각각의 傳記를 撰述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取舍선택을 하면서, 검토 考證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阿道傳에서 각훈은 『삼국사기』 속의 『鷄林雜傳』, 朴寅亮의 『殊異傳』, 『古記』, 高得相의 「詠史詩」 등 네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를 찬술하면서 典據를 상세히 밝혀주었다. 아도전의 경우 참고한 자료 각각의 기록마다 이름과 시기가 달라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고자 자료를 병렬하면서 전거를 밝힌 때문이다.¹⁾ 반면 法空傳에서는 『삼국사기』와 그것에 인용된 『계림잡전』, 『수이전』,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본문 혹은 협주로 인용 설명된 鄉傳을 바탕으로 전기를 찬술하였지만 전거를 일일이 밝혀주지 않았다. 法空傳의 경우 참고한 자료들을 모두 합하여 연대순으로 정리 찬술하였다.²⁾ 이는 각훈이 참고한 자료가 아도전처럼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즉 그 나름대로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해동고승전』이 『삼국유사』처럼 사료의 考證이나 검토보다는 문학적 표현과 潤文에 치우치게 되어 역사서로서의 가치를 약화시켜주게 되었다는 비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³⁾

- 1) 광승훈, 「『해동고승전』 아도전 연구」 『해양문화연구』4, 2010, 426~440쪽.
- 2) 광승훈, 「『해동고승전』 법공전의 찬술」 『한국사학사학보』17, 2008, 7~25쪽.
- 3) 金相鉉, 「『해동고승전』의 사학사적 성격」 『藍史 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高麗苑, 1984, 187~194쪽 ; 金炯佑, 「『해동고승전』에 대한 재검토」 『素軒 南都泳博士華甲記念 史學論叢』, 太學社, 1984, 107~113쪽 ; 張輝玉, 『海東

이런 점에서 『해동고승전』을 각각의 주인공마다 상세히 검토해보면,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 살피려는 안함傳의 경우, 각훈은 여러 참고자료들을 전거를 밝혀 놓을 뿐더러, 安弘과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함·안홍과 관련된 이야기가 『삼국유사』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일연은 이들을 立傳하여 서술하지 않았다. 더욱 각훈의 견해에 대해 可否도 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연이 원광서학조와 보양이목조에서 각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향이 다.⁴⁾ 이런 점에서 안함·안홍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관점이 궁금해진다. 하지만 일연이 『삼국유사』에 立傳하지 않아 사실상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해동고승전』 안함전을 살피고자 한다.⁵⁾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먼저 안함전의 내용을 찬술에 인용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안함에 대한 각훈의 인식을 이해한다. 다음 신라불교사의 흐름 속에서 안함의 활동이 갖는 사상사적 의미를 파악하여, 안함·안홍에 대한 일연의 인식을 알아본다. 끝으로 안함전에 나타나는 경향을 미루어 찬술한 의도를 알아보고, 「安含碑」와 「安含傳」 찬술이 갖는 사학사상의 의미를 살피어 글을 맺고자 한다.

高僧傳연구』, 民族社, 1991, 30~34쪽.

- 4) 然彼諸傳記 皆無鵲岬璃目與雲門之事 而鄉人金陟明 謬以街巷之說 潤文作光師傳 濫記雲門開山祖寶壤師之事迹 合爲一傳 後撰海東僧傳者 承誤而錄之 故時人多惑之 因辨於此 不加減一字 載二傳之文詳矣(『三國遺事』4, 義解5, 圓光西學). 後人改作新羅異傳 濫記鵲塔 璃目之事于圓光傳中 系大城事於毗盧傳 既謬矣 又作海東僧傳者 從而潤文 使寶壤無傳而疑誤後人 誣妄幾何(같은 책, 寶壤梨木).
- 5) 안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章輝玉, 위의 책. 辛鍾遠, 「安弘과 新羅佛國土說」,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1992; 郭丞勳, 「新羅 下代 前期 高僧 追慕碑의 建立」, 『韓國古代史研究』25, 2002; 『統一新羅時代의 政治變動과 佛敎』, 國學資料院, 2002.

II. 안함전 찬술 내용

각훈이 안함전을 찬술하면서 기본적으로 참고한 것은 「안함전」으로 추정되는 전기물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⁶⁾ 여기에 최치원이 지은 『義湘傳』을 비롯 『삼국사기』, 「안함비」의 내용을 참고 추가하였다.⁷⁾ 그리고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열자』와 『법언』 등에 실린 고사를 참고하였다.

1. 안함의 가계와 출가

A① 승려 안함은 속성이 김씨요, 詩賦 이찬의 손자이다. 나면서부터 도리를 깨달아, 성품은 맑고 허심탄회하였다. 의지가 굳세면서도 깊고 아름다운 도량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일찍부터 마음대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에 뜻을 두어, 풍속을 살피어 교화를 널리 펼쳤다.⁸⁾

먼저 안함이 김씨로 시부 이찬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그가 眞骨 귀족 출신임을 알 수 있다. 또 태어나면서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있었다고 하였

6) 이는 필자가 전체를 검토하고 내린 판단이다. 더욱 주 39 및 40 참조. 본 글에서 「安舍傳」은 각훈이 『해동고승전』 안함전을 찬술하면서 참고 인용한 별도의 책으로 假稱이다. 「」가 없는 ‘安舍傳’은 『해동고승전』 안함전을 나타낸다.

7) 본 연구는 안함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인용 내용의 전거가 『海東高僧傳』1, 安舍傳) 반복되는데, 번거로움을 피해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리고 안함전의 원문과 해석은 다음의 세 문헌이 참고되는데, 장휘옥의 것이 가장 좋다. 여기서는 장휘옥의 것을 중심으로 참고 판단하여 필자가 재정리 하였다. 金達鎭 譯, 「海東高僧傳」, 『韓國의 思想 大全集』2, 同和出版公社, 1972 ; 李炳薰 譯, 『海東高僧傳』, 乙酉文化社, 1975 ; 장휘옥, 앞의 책, 1991.

8) 釋安舍 俗姓金 詩賦伊浪之孫也 生而覺悟 性乃沖虛 毅然淵懿之量 莫窮涯畛 嘗浪志遊方 觀風弘化

는데, 이는 각훈이 안함이 출생부터 남달랐음을 밝혀서 높인 것이다. 성품을 冲虛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잡념이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 담겨 있다.⁹⁾ 이것은 列子에 비유한 듯하다. 열자 즉 列禦寇는 중국 전국 시대 鄭 나라 사람으로 黃帝·老子的 道를 숭봉했다. 唐의 玄宗이 天寶 원년(742)에 열자를 높여 冲虛真人에 封하고, 책은 『冲虛眞經』이라 하였다.

안함의 도량이 깊고 아름다웠다고 한 淵毅는 『法言』의 “성대할 뿐이로다. … 文王이 깊고 아름다운 덕을 지닌 것이여.”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덕이 깊다는 것은 八卦를 거둬서 64괘로 한 것을 뜻하며, 덕이 아름답다는 것은 100리의 작은 나라에서 점차로 신망을 얻어 西伯이 되기에 이른 것을 뜻한다.¹⁰⁾ 이는 각훈이 안함을 弘法을 펼친 고승으로 보았음을 알려준다.

2. 안함의 구법과 중국 유학

- B① 진평왕 22년(600)에 고승 惠宿과 道伴되기를 약속하고, 뗏목을 타고 (외국으로 가고자 하여) 泥浦津에서 배를 띄워 涉島 아래를 지나다 갑자기 풍랑을 만나 뗏목을 되돌려서 물가에 대었다.¹¹⁾ 이듬해(601)에 (국왕이) 교지를 내려, 法器를 이를 만한 자를 뽑아 중국에 파견하여 학문을 닦게 하고자 하였을 때, 마침내 법사가 명을 받들어 가게 되었다. 이에 중국으로 가는 사신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멀리 중국의 조정으로 갔다.¹²⁾

9) 김달진, 앞의 책, 1972, 407쪽.

10) 盛哉 … 文王淵懿也 … 淵懿曰 重易六爻 不亦淵乎 浸以光大 不亦懿乎(揚雄, 『法言』; 崔亨柱 解譯, 『법언』, 자유문고, 1996, 116~118쪽).

11) 니포진과 섬도는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사실이 없다.

12) 眞平二十二年 約與高僧惠宿爲伴 擬將乘桴 泛泥浦津 過涉島之下 忽值風浪 回泊此濱 明年有旨 簡差堪成法器者 入朝學問 遂命法師 允當行矣 乃與聘國使 同

혜숙과 함께 중국 유학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사실이 들어 있다. 혜숙은 안함과 함께 興輪寺 금당에 모셔진 十聖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¹³⁾ 그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따르면 혜숙은 동과 서에서 출몰하는 신통력을 갖고 있다. 그는 낭도로서 國仙 구감공의 사냥을 警戒하여 살생을 禁止토록 한다.¹⁴⁾ 다만 그의 신분이 그리 높은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진골 귀족 출신인 안함이 그와 교류하였다는 것은 그 인품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그렇지만 『삼국유사』에는 혜숙과 안함이 교류한 기록이 없다.

결국 안함은 다음 해 601년 나라에서 보내는 유학승에 선발되어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간다. 이때는 진골귀족으로서 우월한 신분이 작용되었던 듯하다.

B② 천왕이 불러 친히 보고 크게 기뻐하며 칙명으로 大興善寺에¹⁵⁾ 머물게 하였다. (스님은) 단시일 내에 깊은 뜻을 환히 깨달았다. 이에 華山에서 仙掌까지 10개의 역이나 되는 길을 正午에 갔다 돌아오니 누가 저녁에 북치는 소리를 듣는다 할 것이며, 秦嶺에서 帝宮까지 千里가 되는 땅을 별이 말달리듯¹⁶⁾ 오르내리니 어찌 새벽 종소리를 기다린다 하겠는가? 十勝의 秘法과 (法華)玄義의 진실한 문장을 5년 동안에 두루 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¹⁷⁾

舟涉海 遠赴天庭

13) 뒤의 사료 F 참조.

14) 『三國遺事』4, 義解5, 二惠同塵조.

15) 원문은 唐나라 때의 大興聖寺로 되어 있으나, 안함이 중국에 유학한 해가 隋나라 文帝가 다스릴 때였으므로, 그가 주석한 절은 長安(지금의 西安)의 대흥선사로 보는 것이 옳다(장휘옥, 앞의 책, 1991, 206쪽). 여기서서는 대흥선사로 교정하여 살핀다.

16) 星馳 : 밤하늘에 별뿔별이 순식간에 떨어지듯 빠른 모양.

17) 天王引見 皇情大悅 敕配於大興聖(善)寺居住 旬月之間 洞解玄旨 於是華山仙掌十驛之程 即日午行廻 誰聞夕鼓 秦嶺帝宮千里之地 卽星馳陟降 豈待晨鐘 十乘秘法 玄義眞文 五稔之中 莫不該覽

중국에 유학한 안함은 황제의 명으로 長安(지금의 西安)의 대흥선사에 머물렀다. 당시 황제는 隋나라 文帝가 된다. 중국에서 안함은 불법의 심오한 뜻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난 신통력을 가졌다. 더욱 그 신통력은 화산에서 선장까지 10개 역을 정오에, 진령에서 장안 궁궐까지를 자정 이전에, 왕래하는 정도로 한 나절도 아닌 반나절이면 충분하였다. 華山은 陝西省 華陽縣에 있는데, 仙掌은 그 동쪽에 있다. 秦嶺은 진령산맥의 출발지인 秦川이며, 帝宮은 곧 황제가 있는 궁궐을 말한다.¹⁸⁾

그리고 안함의 교학에 대해서 十勝의 秘法과 玄義를 말하였는데, 내용이 뚜렷하지 않다. 당시 隨나라에서는 天台智顓의 法華三昧思想이 널리 유행하였다. 고로 長安에 있던 안함 역시 천태지의의 학문을 공부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십승비법은 『摩訶止觀』에 나오는 十勝의 觀法으로 여겨지며, 현의는 천태지의의 『法華玄義』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이는 각훈이 안함을 범화사상가로 생각하였음을 짐작케 해준다.

3. 안함의 귀국과 안흥

C① 그 뒤 27년(605)에 于闐國의 사문 毘摩眞諦와 사문 農加陀 등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서역의 胡僧이 직접 鷄林으로 온 것은 대개 이때부터였다.²⁰⁾

18) 秦川은 陝西省과 甘肅省의 秦嶺 이북으로, 春秋 시대에 秦나라에 속했던 곳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진령은 동남쪽으로 길게 뻗어 장안의 북쪽에서 끝나는 데, 그 산 이름이 바로 終南山이다.

19) 장휘욱, 앞의 책, 1991, 206쪽 ; 김복순, 「수당의 교체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43, 2000 : 『新思潮로서의 신라 불교와 왕권』, 경인문화사, 2008, 46쪽.

- C② 최치원이 지은 『의상전』에 말하기를 “의상은 진평왕 건복 42년 (625)에 태어났다. 이 해에 동방의 성인 안홍법사가 서역의 세 사람의 삼장과 중국 승려 두 사람과 함께 당나라로부터 돌아왔다”고 하였다. 주석하여 말하기를 “북천축 烏菟國의 毘摩羅眞諦의 나이는 44세, 농가타의 나이는 46세, 마두라국의 불타승가의 나이는 46세였다. 52국을 경유하여 비로소 중국에 이르렀는데, 마침내 해동으로 왔다. 황룡사에 머물면서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을 번역하였는데, 신라의 승려曇和가 받아썼다. 얼마 안 되어 중국 승려들은 글을 올려 중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기를 청하므로, 왕이 허락하고 보냈다” 하였으니 그 안홍이란 아마 이 (안함)화상일 것이다.²¹⁾
- C③ 또 신라본기를 살펴보면 “진홍왕 37년(576)에 안홍이 陳나라에 들어가 법을 구하고, 胡僧 毘摩羅 등 두 사람과 함께 돌아와 『능가경』, 『승만경』 및 부처님 사리를 바쳤다”고 한다.²²⁾
- C④ 진홍왕 말년에서 진평왕의 건복 연간까지는 거의 50년의 차이가 있는데, 어찌 삼장이 온 전후가 이와 같은가? 어쩌면 안함과 안홍은 실제로 두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한 삼장이 다르지 않고, 그 이름도 다르지 않으므로 지금 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또 서역의 삼장이 가고 머무르고 마친 바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²³⁾

20) 越二十七年 爰與于闐沙門毘摩羅眞諦 沙門農加陀等 俱來至此 西域胡僧 直到雞林 蓋自茲也

21) 崔致遠所撰義相傳云 相眞平建福四十二年受生 是年東方聖人安弘法師與西國三藏 漢僧二人至自唐 注云 北天竺 烏菟國毘摩羅眞諦 年四十四 農加陀 年四十六 摩羅羅國佛陀僧伽 年四十六 經由五十二國 始至漢土 遂東來 住皇龍寺 譯出旃檀香火星光妙女經 鄉僧曇和筆授 未幾漢僧上表 乞還中國 王許而送之 則安弘者 殆和尚是也

22) 又按新羅本記 眞興王三十七年 安弘入陳求法 與胡僧毘摩羅等二人廻 上楞伽勝鬘經及佛舍利

23) 自眞興未至眞平建福 相去幾五十年 何三藏來之前却如是 或恐安含 安弘 實有二人 然其所與三藏不殊 而厥名不殊 今合而立傳 又未詳西國三藏去留所終

먼저 C①의 「안함전」에 따르면, 605년 于闐國²⁴⁾ 승려 毘摩眞諦 등과 함께 귀국한다. 이를 두고 각훈은 신라에 서역의 인도 승려들이 처음으로 들어 온 것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주인공의 이름이 안홍으로 다르지만, 안함의 활동과 유사한 일화가 전하고 있다. C②는 최치원이 지은 『의상전』에 인용된 것이다. 여기에 안홍이 진평왕 42년(625) 북인도 烏菴國²⁵⁾ 출신 毘摩羅와 農伽陀 그리고 마두라국 출신 佛陀僧伽 등 세 사람, 그리고 중국 승려 두 명과 함께 입국하였다. 또 안홍은 이들과 함께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을 번역하였는데, 신라 승려 曇和가 이를 받아 적었다고 되어 있다. 이를 C①의 「안함전」 내용과 비교해보면, 인도 승려의 출신국과 연대가 다르며, 또 번역한 불경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다르다. 그럼에도, 인도 승려 두 사람의 이름이 같다는 점에서 여전히 흥미롭다.

C③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안홍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다. 이것 역시 위의 C①과 비교해볼 때, 함께 온 인도 승려 毘摩羅의 이름이 같다. C②와 비교해보면, 비마라의 이름이 같고 또 인도 승려의 인원수가 일치한다. 하지만, 귀국하면서 가져온 경전을 구체적으로 들면서도 譯經의 사실은 생략되어 다르다. 또한 연대는 거의 5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안홍이 유학한 나라도 陳나라가 되어 다르다.

이렇게 세 자료를 살핀 각훈은 C④에서 안함과 안홍이 이름과 연대의

-
- 24) 于闐國은 葱嶺(파미르 고원지대)의 북쪽 200여 리에 위치하는데, 오늘날의 신강 위구르 자치주인 호탄(Khotan, 和田)이다.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에 사찰과 승려가 많으며, 大乘法이 행해졌다고 되어 있다. 혈연적으로 보면 인도-중국의 융화물(藏族, 티베트족)로 볼 수 있으며, 언어는 인도의 방언(프라크리트)을 사용했다. 정수일 역주, 『해초의 왕오천축국전』, 학고재, 2004, 439~442쪽 참조.
- 25) 烏菴國은 葱嶺 남쪽에 위치하는데, 오늘날의 인더스강 편자브 이북 스와트강 양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에 사찰과 승려가 많으며, 大乘法이 행해졌다고 되어 있다. 정수일 역주, 위의 책, 2004, 302~304쪽 참조.

차이가 나지만, 동행한 승려들의 이름이 같아 합해서 전기를 만든다고 밝힌다. 결국 각훈은 돌을 같은 인물로 보았는데, 이는 「안함전」의 끝 부분에서 다시 강조된다.

4. 안함의 활동과 입적

- D① 화상은 본국으로 돌아온 뒤 『讖書』 한 권을 지었는데, 그 인쇄된 글자가²⁶⁾ 희미해져 있어 글을 아는 사람도 알기가 어려웠고, 그 종지가 깊이 숨겨져 있어 이치를 찾는 사람도 궁구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마치 “부영이가 -經文의 글이 희미하여 잘 알 수 없다.” 또 (화상은) “제일 여주를 도리천에 장사지낼 일, 천리에 나아가 싸우던 군사가 패할 일, 사천왕사가 이루어질 일, 왕자가 고국에 돌아올 해, 대군의 盛名(삼국통일)할 해”등을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 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예언 한 것이었는데, (법사가) 똑똑히 눈으로 본 것처럼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²⁷⁾
- D② 선덕왕 9년(640) 9월 23일에 만선도량에서 입적하니 향년 62세였다. 그 달에 나라의 사신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오다가 우연히 법사를 만나니 (그는) 푸른 물결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 태연히 서쪽으로 향해 가더라고 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이른바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마치 계단을 오르듯 하고, 물 위에 앉는 것을 마치 땅 위를 다니듯 한(것을 증명하는) 것이다.²⁸⁾
- D③ 翰林 薛某가 왕명을 받들어 碑銘을 지었다. 그 비명에 말하기를 “왕후(선덕여왕)를 도리천에 장사지내니, (사천)왕사가 세워졌네. 괴상한 새가 밤에 우니, 군사들이 모두 아침에 죽도다. 왕자

26) 원문에 따라 인쇄된 글자로 해석하였으나, 필사본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27) 和尚返國以後 作讖書一卷 字印離合 爲文者罕測 宗途幽隱 索理者難究 如云 鶻鷲鳥 -經文隱晦未詳-散 又云 第一女主葬切利天 及千里戰軍之敗 四天王寺之成 王子還鄉之歲 大君盛明之年 皆懸言遙記 的如目覩 了無差脫

28) 善德王九年九月二十三日 終于萬善道場 享年六十二 是月鄉使從漢而邇遁法師 敷座于碧浪之上 怡然向西而去 眞所謂騰空步階 坐水行地者矣

는 관문을 건너 (중국)조정에 들어가 임금을 뵈오니, 5년간 외지에서 보낸 후 30세에 돌아왔네, 뜨고 잠기는 輪廻轉生을 저나 나나 어찌 면하리오?” 하였다.²⁹⁾

- D④ 나이 62세에 萬善(도량)에서 입적하니, 사신이 바닷길로 돌아오다가 스님을 만나니 물 위에 단정히 앉아 서쪽을 향해 가더라” 하였다. -비문이 이끼에 침식되어 글자가 이지러졌으니 10자 가운데 4·5자가 손상되었다. 대략 볼 수 있는 것만을 취하여 짐작으로 문장을 만들었다. 대개 다른 (문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또한 그가 남긴 자취를 짐작할 수 있다.³⁰⁾

여기서는 안함의 활동과 입적을 서술하였는데, 「안함전」과 「안함비」 두 가지 자료를 모두 담아 놓고 비교하였다. 그런데 이들 두 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거의 일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D①의 「안함전」에 나타난 神異 가운데 안함의 預知力を 살펴본다. 『讖書』에서 글자가 희미하다는 것은 책이 오래되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때문이라 여겨진다. 第一 女主를 忉利天에 장사지낼 일은 왕명에 따라 狼山 남쪽에 선덕여왕릉을 모신 사실을 말한다. 이는 뒤에 文武王이 왕릉 아래에 四天王寺를 조성하게 되는데, 일연이 지적한 것처럼 四天王天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佛經에 언급된 것과 같다. 따라서 안함의 예언이 입증된다.³¹⁾ 왕자가 고국에 돌아올 해는 金仁問의 귀환을 예언한 것으로 여겨진다. 大君의 盛名할 해는 삼국을 통일할 때를 말한 것이다.³²⁾

千里에 나아가 싸우던 군사가 패한 일은 뚜렷하지 않다. 이것 역시 선덕여왕대 사실과 관계가 깊을 듯한데, 아마도 백제군사가 王京 서쪽의 女

29) 翰林薛某奉詔撰碑 其銘云 后葬忉利 建天王寺 怪鳥夜鳴 兵衆旦殫 王子渡關 入朝聖顏 五年限外 三十而還 浮沈輪轉 彼我奚免

30) 年六十二 終于萬善 使還海路 師亦交遇 端坐水上 指西而去 -碑文苔蝕字缺 十喪四五 略取可觀擬以成文- 蓋不待他 亦髣髴其遺跡矣

31) 『삼국유사』1, 紀異2, 善德王 知幾三事조 : 장휘옥, 앞의 책, 1991, 208쪽.

32) 장휘옥, 위의 책, 1991, 208쪽.

根谷에 몰래 잠입하였다가 몰살된 사실을 말한 것 같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당시 靈妙寺 玉門池에 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모여 우는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영문을 알 수 없어 선덕여왕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왕이 지혜로 적군들이 여근곡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군사를 보내 몰살시켰다.³³⁾ 그리고 이러한 예언이 정확히 맞아들었다고 밝혀 놓은 것은 안함이 갖춘 預知力을 강조한 것이다. 더욱 이 내용들은 뒤에 설명되는 D③ 곧 「안함비」의 銘 부분에 요약된 것과 흡사하여 주목된다.

다음 D②에서는 안함의 入寂과 神異를 서술하였다. 안함은 선덕왕 9년(640) 만선사에서 62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이 때 중국에서 돌아오던 사신이 법사가 물위에 앉아 서쪽으로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D③에서는 翰林 薛某가 찬술한 「안함비」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신라의 文翰官인 한림은 본래 詳文師로서, 聖德王 때에는 通文博士로 景德王대에 들어와 고쳐 불리어진 명칭이다.³⁴⁾ 이 사실에서 「안함비」는 경덕왕대 이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이는 다른 十聖들과 관련지어 볼 때, 신라 하대 전기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³⁵⁾ 이 비문은 각훈이 살피기에 너무 파손이 심해서 내용을 살피기 어렵지만, 뒤의 銘 부분을 읽어내었다. 이를 통하여 살핀 내용이 위의 D①에 언급된 안함이 지은 『참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더하여 D①에서 ‘부영이가’라고 언급한 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D③을 통하여 ‘괴상한 새가 밤에 우니, 군사들이 모두 아침에 죽도다’고 말한 것과 연결된다. 그리고 괴상한 새는 바로 부영이로 여겨진다. 부영이는 예부터 흉조를 알리는 새로, 부영이가 날아

33) 『삼국유사』1, 紀異2, 善德王 知幾三事조.

34) 『三國史記』39, 雜志8, 職官 中.

35) 郭丞勳, 「新羅 下代 前期 興輪寺 金堂 十聖의 奉安과 彌勒下生信仰」, 『韓國思想史學』11, 1998 : 『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 國學資料院, 2002, 194~195쪽. 더욱 곽승훈, 「新羅 下代 前期 高僧追慕碑의 建立」, 『韓國古代史研究』25, 2002 : 같은 책, 2002, 146~159쪽 참조.

와 울면 집의 주인이 죽는다고 전한다.³⁶⁾ 따라서 괴상한 새가 밤에 나타난 것이 아침에 군사들이 죽는 것과 자연 연계된다. 나아가 이는 선견지명이 있는 선덕여왕이 짐작에 알고 대비한 것이 된다. 그래서 신라가 국난의 위험을 모면하게 된 것이다.³⁷⁾

다음 D④에서는 「안함비」에 실린 안함의 입적 연대와 나이를 밝혀 놓았는데, D②의 「안함전」 내용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안함전」과 「안함비」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각훈은 「안함비」가 오래 되어 관독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면서, 대강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짐작으로 읽어내었다고 밝혔다.

5. 안함 예찬

E 찬하여 말한다. 법사께서 신통과 해탈로 가고 음이 자재로운 것은 큰 보살들로서는 한가한 일이니, 어찌 그것에 관한 것을 글이나 말로써形容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조정에 들어가, 처음으로 서역의 삼장과 함께 몸소 진리의 근원을 살피어 법의 고등을 불교 법의 비를 내리니, (마치) 강물이 바다 구석까지 적시듯 진실로 불법을 널리 펼친 성인이었다. 글자를 세 번 옮겨 적으니 까마귀 烏자가

36) 鵲鵲은 곧 울빼미과에 속하는 부엉이류로서 梟鴞鴞鴞로 불리는 猫頭鳥와 같은 부류라고 한다. 『嶺表錄異』에, “猫頭鳥란 것은 바로 울빼미인데, 閩中(지금의 福建省) 사람들은 무척 꺼려 ‘이것은 城隍의 혼이 씌운 使者로서 밤에 인가의 옥상에서 울면 반드시 그 집 주인이 죽는다.’고 한다(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典類 1 禮經, 禮記 氣候月令辨證說: 『국역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16, 민족문화추진회, 1977, 234-235쪽). 실제로 이 부엉이가 대궐에 나타나면 祈口祭를 지낸 사실이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여럿 보인다. 이로 미루어보면 부엉이는 예전에 변고를 알려주는 새의 하나였음을 알겠다.

37) 위에서 얘기한 『삼국유사』1, 紀異2, 善德王 知幾三事조에는 부엉이가 개구리로 바뀌어 있다. 다른 이야기가 된 듯하나, 새벽에 군사가 몰살된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같은 것이 아닐까 한다.

말 馬자로 되었다. 나는 舍과 弘 두 글자에 하나의 혼동이 있었을
을 의심한다.³⁸⁾

위 내용은 각훈의 찬으로, 안함의 신통력으로 왕래가 자유로운 것은 큰 보살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각훈이 안함을 보살성인의 경지에 오른 聖人으로서 본 것이다. 그리고 신라불교사에서 안함의 활동은 인도 승려들과 함께 불법을 신라 전역에 펼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그로인하여 인도 출신의 고승들이 신라로 오게 된 점에 의의를 둔 것이다. 끝으로 안함과 안흥에 대해 각훈은 동일한 사람으로 결론지었다.

각훈이 안함전을 찬술하며 참고한 자료 가운데, 최치원이 지은 『의상전』과 『삼국사기』는 안흥과 안함이 동일인물일 것이라는 고증 자료이다. 따라서 각훈이 찬술한 내용은 안함과 관련된 가칭 「안함전」과 직접 살핀 「안함비」가 된다. 그런데 두 전기의 내용이 거의 같아 구분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대체로 비문은 먼저 주인공의 傳記 혹은 行狀이 우선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비석에 맞게 새로 편집된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비문을 짓는 자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加減되고, 다시 세련된 문장으로 다듬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元和 12년(憲德王 9년: 817)에 작성된 「鬪香壇禮佛結社文」과 다음 해에 세운 「異次頓殉教碑」(혹은 「栢栗寺石幢記」)를 참고할 수 있다.³⁹⁾

이로 미루어 볼 때, 「안함전」은 「안함비」를 세우기 전에 쓰여진 안함

38) 贊曰 師之神通解脫 去住自在 大菩薩之閑事 豈容筆舌於其間哉 然入朝始與西域三藏 手派眞源 吹法螺而雨法雨 河潤海隈 眞弘法之聖人也 字經三寫 烏焉成馬 予疑舍弘二字之有一錯焉

39) 곽승훈, 「新羅 下代 前期 高僧追慕碑의 建立」 『韓國古代史研究』25, 2002 : 앞의 책, 2002, 148~151쪽

의 전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각훈이 신라시대에 이루어진 「안함전」을 직접 보았을 것 같지는 않다. 아무래도 다른 책에 인용된 것을 재인용한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전기의 내용이 좀 더 자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폈듯이 「안함비」가 세워진 시기는 하대 전기가 확실하다. 따라서 「안함전」은 바로 그에 앞서 지어진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듯하다.⁴⁰⁾

Ⅲ. 각훈과 일연의 안함·안흥 인식

이상에서 살펴 온 것처럼 覺訓은 안함과 안흥의 활동을 주목하고 『海東高僧傳』에 안함으로 합하여 立傳하였다. 하지만 一然은 이들에 대해 立傳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살펴겠지만, 『삼국유사』의 내용으로 보아 일연은 두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자신이 열람한 책에서 십분 읽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각훈과 일연이 서로 달리하는 어떤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 된다. 이를 알기 위해 먼저 신라에 불교가 도입된 이후 전개된 중고시기 불교사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려 한다. 이를 통하여 진평왕대의 불교와 안함의 활동이 끼친 영향과 사상사적 의미를 찾아본다.

신라 불교는 法興王代 불교 공인이 이루어지면서 교학이 수입되는데, 당시에 전래된 교학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 眞興王代에 들어와 승려들을 중국에 유학시켜 불법을 배워오게 하였다. 고승 覺德은 중국에 유학하였다가, 진흥왕 10년(549)에 梁나라 사신과 함께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돌아왔다. 明觀도 중국에 들어가 불법을 공부한 후 진흥왕 26년(565) 陳나라 사신 劉思와 함께 귀국하면서 불교의 경론을 무려 2,700

40) 각훈이 「안함비」를 토대로 안함의 전기를 직접 구성한 듯한 느낌도 든다.

여 권이나 가져왔다. 이로서 신라가 불법의 교화를 처음으로 펼칠 때 많은 경전과 불상이 빠진 것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고 각훈은 평가하였다.⁴¹⁾

이렇게 진작된 신라 불교는 眞平王代에 들어와 승려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고승들이 배출된다. 智明은 진평왕 7년(585) 陳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배운 뒤 24년(602) 사신을 따라 귀국하였다. 그는 戒律로 이름이 높았는데, 왕은 귀중히 여겨 大德에 임명한다. 지명이 求法을 한 뒤 얼마 있다가 圓光法師와 曇育·安舍 등이 불법을 공부하러 陳나라와 隋나라에 들어갔다. 원광은 『성실론』과 『열반경』 등을 공부하였고, 안함은 앞서 살핀 것처럼 十勝과 玄義의 비법을 공부한 것으로 미루어 天台法華思想을 익히고 돌아왔음을 생각할 수 있다.⁴²⁾ 더욱 안함과 원광을 뒤이어 善德女王代에 이르면, 신라불교계의 교화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다. 장법사가 계율사상을 익히고 참여와 불교교단을 호령하고, 이어 저 유명한 원효와 의상이 나온다.⁴³⁾

이런 속에서 안함(혹은 안흥)이 인도승려들과 함께 귀국한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신라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습득하게 된 듯하다. 이는 이후 중국을 넘어 인도에 직접 유학하려는 승려들이 다수 나온다는 점에서 심분 생각할 수 있다.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소개된 구법승 가운데 신라 출신이 8인이 될 정도이니,⁴⁴⁾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비

41) 『三國史記』4, 신라본기4, 眞興王 ; 『海東高僧傳』1, 法雲傳 및 覺德明觀傳 참조.

42) 『海東高僧傳』2, 流通 1-2 ; 張輝玉, 『海東高僧傳研究』, 民族社, 1991, 185쪽.

43) 광승훈, 「신라 골품제사회의 정치변동과 불교」 『한국고대사탐구』15, 2013, 128~132쪽 참조.

44)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실린 신라유학승 일람표.

이름	활동시기	경유지	구법활동	입적	입전사유	사상
아리아발마	정관 (추정)	총령	나란타사	나란타사	부도 목격 혹은 전문	모름

마라 등 3인의 인도승려가 안함을 따라 신라에 들어와서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각훈은 인도로 유학한 승려들을 주목 立傳하여 높이 평가하였다.⁴⁵⁾

이상은 각훈이 『해동고승전』에서 찬술한 신라불교사 속에서 초기 100년의 흐름이다. 그런 흐름 속에서 안함에 대한 각훈의 평가는 인도 승려와 함께 불법의 眞源을 살피어 널리 흥법을 펼친 분이였다.⁴⁶⁾ 이는 이후 신라인들이 중국을 넘어 인도로 구법하러 가는 승려들이 많아진 사실에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처럼 각훈은 안함의 활동이 신라불교사에서 갖는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전기를 세웠다. 또한 그 과정에서 안함과 안흥을 동일인으로 보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일연은 『삼국유사』에 안함의 傳記를 세우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안함과 관련해 『삼국유사』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 있어 흥미롭다.

F 동쪽 벽에 앉아서 서쪽으로 향한 진흥 塑造像은 我道 猷髡 惠宿 安
 舍 義湘이요, 서쪽 벽에 앉아서 동쪽으로 향한 진흥 소조상은 表訓

혜업	정관 (추정)	설령	대각사	대각사	부도 목격 혹은 전문	정명경? 섭대승론
현각	정관 (추정)	토번	대각사	대각사	현조 전문	현조
亡名 2인	정관 (추정)	광주 (해로)	못함	실리불서 서파로사	부도 목격 혹은 전문	모름
구분	정관 (추정)					모름
혜륜	고종 연간	암마파라국 신자사	건타라국 산다사	산다사 주석중	의정 상봉	현조 구사론
현태	고종 연간	토번 네팔 삼도보계탑	대각사	후에 귀당 주석	의정 상봉	도회법사? 성명학

* 광승훈, 『『海東高僧傳』 유학승 傳記 연구』 『한국고대사탐구』8, 2011, 46쪽.

45) 더욱 광승훈, 위의 논문, 2011, 57~62쪽 참조.

46) 앞의 사료 E 참조.

蛇巴·元曉·惠空·慈藏이다(『삼국유사』 3, 興法4, 東京興輪寺 金堂十聖).

여기에서 홍륜사 금당에 봉안된 十聖의 한 분으로 安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연이 안함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심성은 불교의 初傳者인 아도로부터 景德王代에 활동한 표훈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모두 신라불교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분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심성을 봉안한 목적은 우선 그들의 공적을 기리고자 한 것임을 알겠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심성과 관련된 전기 혹은 설화가 『삼국유사』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⁴⁷⁾ 그렇지만 유독 안함과 관련된 전기가 없음은 아이러니라 할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백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동경홍륜사 금당십성조가 『삼국유사』의 체제에 나타나는 일정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보아, 一然이 아니라 후대에 제3자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이 조목이 비록 흥법편에 편성되었지만, 내용으로 볼 경우 塔像篇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심성의 이름만 나열하고, 정작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또한 없기 때문이다.⁴⁸⁾ 이렇게 보면 일연이 안함과 관련된 기사는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연은 안함은 물론 신라시대에 모셔진 심성에 대해서도 알기 어려

47)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아도는 阿道基羅조. 염축은 原宗興法猷髡滅身조.(이상 興法篇) 혜숙 혜공은 二惠同塵조, 자장은 慈藏定律조, 의상은 義湘傳教조, 원효는 元曉不羈조, 사파는 蛇福不言조.(이상 義解篇) 그리고 표훈은 紀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조(紀異篇)에 들어 있다.

48) 李基白, 「三國遺事の 篇目構成」 『佛教와 諸科學』, 東國大 出版部, 1987, 988쪽 : 『한국고전연구』, 일조각, 2004, 26쪽. 이에 대해서 일연이 직접 답사하여 살펴보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金相鉉, 「三國遺事の 歷史方法論的 考察」 『東洋學』23, 1993, 4-5쪽). 이 경우 심성과 관련된 전기를 『삼국유사』에 수록하면서도 유독 안함을 빠트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웠을 것이다.⁴⁹⁾

다음 안홍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우선, 일연은 각훈이 열람한 최치원이 지은 『의상전』과(B②) 『삼국사기』에(B③) 실린 안홍 기사 역시 살핀 사실이 확인된다.⁵⁰⁾ 따라서 일연은 안홍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 더욱 안홍과 관련한 『삼국유사』의 아래 기록은 또 다른 자료로서 주목된다.

G 海東名賢 安弘이 지은 『東都成立記』에 이런 기록이 있다. 신라 제 27대에 여자가 왕이 되니, 덕은 있어도 위엄이 없으므로 九韓이 침범하게 되었다. 만약 용궁 대궐 남쪽 皇龍寺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의 침해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탑을 세웠다. 제1층은 일본을, 제2층은 중국을, 제3층은 吳越을, 제4층은 托羅를, 제5층은 鷹遊를, 제6층은 말갈을, 제7층은 거란을, 제8층은 여진을, 제9층은 穢貊을 진압시킨다(『삼국유사』3, 興法4, 皇龍寺九層塔).⁵¹⁾

위 내용은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부처님의 威神力으로 9韓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데, 안홍이 지은 『동도성립기』에 들은 것이다. 결국 이는

49) 각훈이 「안함비」를 보았으므로, 일연 역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일연은 동경(경주)에 있으면서, 「異次頓殉教碑」(『삼국유사』3, 흥법3, 原宗興法 馱羈滅身坐)와 황룡사에 있는 迦葉佛宴坐石(같은 책, 塔像4, 迦葉佛宴坐石坐)을 보았다. 고로 그 역시 「안함비」를 보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 결론짓기 어렵다.

50) 未幾西圖觀化 遂與元曉道出遼東 邊戍羅之爲謀者 囚閉者累旬 僅免而還 -事在 崔侯本傳 及曉師行狀等-(『삼국유사』4, 義解5, 義湘傳教). 按國史 眞興王即位十四 開國三年癸酉二月 築新宮於月城東 有皇龍現其地 王疑之 改爲皇龍寺(같은 책, 탑상4, 迦葉佛宴坐石).

51) 海東名賢安弘撰東都成立記云 新羅第二十七代 女王爲主 雖有道無威 九韓侵勞 若龍宮南皇龍寺建九層塔 則隣國之災可鎮 第一層日本 第二層中華 第三層吳越 第四層托羅 第五層鷹遊 第六層靺鞨 第七層丹國 第八層女狄 第九層穢貊(『삼국유사』3, 탑상4, 皇龍寺九層塔坐).

신라가 황룡사에 9층탑을 세워 삼국통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안홍의 권유를 받아들인 결과임을 밝힌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일연은 安弘의 預知力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9층탑과 관련한 사실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더욱 최치원이 지은 『義湘傳』 내용 또한 안홍의 귀국사실 외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삼국사기』의 기록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일연은 안홍에 대한 전기를 세울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⁵²⁾

이렇듯 안함과 안홍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찾지 못한 일연은 立傳은 물론, 두 사람이 동일인물일 것이라는 각훈의 견해에 대해서도 可否를 말하지 않은 것 또한 이해가 된다. 따라서 이는 일연이 그 나름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⁵³⁾ 이런 점에서 볼 때, 각훈이 「安舍碑」의 내용을 토대로 안함전을 찬술하여 전한 것은 신라불교사의 이해는 물론 사학사상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IV. 각훈의 찬술 의도와 의의

法興王代 불교가 공인된 이래, 신라 불교는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는 선덕여왕대 이후 자장 의상 원효 등과 같은 고승 대덕이 나타난 것에서

52) 일연은 9층탑 조성을 사실상 자장의 건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위의 책). 따라서 9층탑과 관련한 예지력만으로 일연이 안홍을 높이 평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안함과 안홍에 대한 오늘날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 보면, 前問恭作과 신종원은 동일인으로, 김상현과 권덕영은 다른 인물로 보고 있다(신종원, 앞의 책, 1992, 235쪽 주 9 참조).

53) 만약 일연이 안함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고서도 수록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안함의 사상적 경향에 있다고 본다. 그것은 안함이 천태법화사상의 영향을 받은 때문일 것이다. 조계종의 일연으로서는 불편한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삼국유사』에는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그 위상을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사이에 활동한 승려들의 傳記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 이런 까닭에 眞興王과 眞平王代에 활동한 승려들의 사상적 경향은 圓光 이외에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安含에 대한 전기가 남아 채록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사상사를 살피는데, 의미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 각훈은 안함의 활동이 신라 불교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부각하였다. 그러한 각훈의 찬술 의도를 알기에 앞서, 내용에 나타난 경향을 알아본다.

첫째, 안함의 獨自性이 강조되었다. 안함에게는 앞날을 미리 아는 預知力이 있었다. 안함은 『참서』에서 第一女主(善德女王)를 忉利天에 장사지낼 일, 千里에 나아가 싸우던 군사가 패할 일, 四天王寺가 이루어질 일, 왕자(仁間)가 고국에 돌아올 해, 大君의 盛明(통일)할 해 등을 말하였는데, 모두 어긋남이 없었다. 더욱 안함에게는 신통력도 있었다. 안함이 華山에서 仙掌까지 十驛을 또 帝宮에서 秦嶺까지의 천리 길을 만나절에 왕래한 일, 入寂한 뒤 바다 위에 자리를 펴고 서쪽으로 향해 간 일 등이 그렇다.

둘째, 안함이 인도승려와 함께 펼친 弘法 활동이 높이 평가되었다. 안함은 중국 유학을 마친 뒤 인도 승려 毘摩眞諦·農伽陀 등과 함께 귀국하였고, 또한 이들과 함께 경전을 번역하였다. 이후 신라에서는 중국을 넘어 인도로 유학하는 승려들이 다수 나타난다. 이를 두고 각훈은 안함이 인도 승려들과 함께 몸소 眞源을 나누어 신라에 흥법을 펼친 인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각훈은 『法言』의 고사 즉 文王이 8卦를 심화시키고 영역을 넓힌 고사에 비유하여, 그 의미를 고양하였다.

셋째, 안함의 사상적 경향으로 十勝의 비법과 玄義를 이야기하였다. 다만 이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은 생략하였다. 하지만 이는 신라불교사의 흐름에서 볼 때 적합한 의미가 있다. 진평왕대 四佛山에서 『법화경』을 염불하였고, 현광은 慧思로부터 연광은 천태지의로부터 법화사상을 배우고 들어와 널리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⁴⁾

찬술자인 각훈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다. 그가 우세승통이었다는 점과 학문과 문장에 조예가 깊어 문인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안함전을 찬술하면서 유교 경전을 인용한 것은 유학에 학문적 깊이가 있었기 때문이다.⁵⁵⁾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당시는 武人政權시기였다. 君主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무인들이 득세를 하는 모습은 결코 불교계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虐政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민란을 일어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함전의 찬술에서 국가 혹은 국왕의 護法 활동을 어떤 의도로 서술해 놓았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를 알아본다.

안함이 『讖書』에서 밝힌 내용은 第一女主를 忉利天에 장사지내고 사천왕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선덕여왕을 忉利天王에 비유한 것이다.千里에 나아가 싸우던 군사가 패할 일은 백제군사의 기습을 예언하여 막도록 한 것이다. 왕자(김인문)가 고국에 돌아올 해와 大君의 盛明(통일)할 해는 신라인들에게 희망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 모두는 신라의 왕실과 관련되고, 또한 호국을 넘어 삼국통일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의 발전을 담은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는 고승 안함의 초능력으로 예견된 것으로 적확하게 맞았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맞아들은 이유를 보면, 당연 신라국가가 불교를 도입한 이후 보호하고 장려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안함의 경우 나라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유학승에 선발되었다. 그래서 안함과 같은 여러 고승들이 출현하고, 국가의 앞날은 고구려 백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 통일을

54) 『삼국유사』3, 탑상4,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조 ; 『弘贊法華傳』9, 緣光傳 ; 『宋高僧傳』18, 陳新羅國玄光傳. 더욱 김복순, 앞의 논문, 2000, 50~52쪽 참조.

55) 김상현, 「해동고승전의 사학사적 성격」 『藍史 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高麗苑, 1984, 176~180쪽 ; 金炯佑, 「해동고승전에 대한 재검토」 『素軒南都泳博士華甲記念 史學論叢』, 太學社, 1984, 104~107쪽 ; 장휘옥, 앞의 책, 1991, 45~48쪽.

이루는 데로 나가게 된 것이다. 결국 안함전의 찬술은 각훈이 불교의 위대성을 선양하는 한편으로, 국가가 護法을 통하여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권하려는 意圖를 담은 것이라 이해된다.

신라 불교는 법흥왕대 공인 이후, 진흥왕대 覺德과 明觀이 유학하고 들어와 불법을 제대로 갖추었다. 이후부터 중국으로 가는 遊學僧들이 많아져 신라불교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던 차에 안함이 인도 승려와 함께 들어 온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신라에서는 중국을 넘어 인도로 유학하는 승려들이 다수 나오게 된다. 이것은 각훈이 신라불교사의 흐름 속에서 안함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안함의 사상에 대해 십승의 비법과 법화현의를 탐구했다고 하였다. 다만 이는 이를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아 크게 강조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는 신라불교사 속에서 진평왕대에 『법화경』을 독송하는 승려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각훈이 안함의 사상적 경향을 신라불교사상사에서 天台法華思想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여겨진다.

끝으로 각훈의 안함전 서술은 신라 하대 전기에 있었던 역사 서술의 일면을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안함전 찬술을 위해 각훈은 「安含碑」와 「安含傳」을 토대로 하였는데,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따라서 두 전기물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 下代 전기 興輪寺 金堂에는 안함을 비롯한 열 분의 聖人像이 봉안되었다. 이들 가운데 여러분의 비석이 세워졌고, 이를 통하여 전기가 작성되고 다시 비문으로 정리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⁵⁶⁾ 이런 점에서, 이 시기 심성과 관련하여 일련의 傳記 撰述이 있었음을 미루어 알기에 어렵지 않다. 그 결과 우리는 「안함전」과 「안함비」에 실린 내용을 통하여 신라 하대 전기 역사 서술의 한 단면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신라 하대 전기 史學史의 공백

56) 주 39) 참조.

을 일부나마 매우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 그것이 각훈에 의하여 다시 계승되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V. 맺음말

각훈은 안함전 찬술을 위해 「안함비」와 「안함전」을 토대로 구성하였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따라서 두 전기물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안함과 안홍이 동일인임을 고증하기 위해 최치원이 지은 『의상전』과 『삼국사기』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안함은 김씨로 眞骨출신이었다. 601년 유학승으로 선발되어 隋나라에 들어가 5년동안 불법을 배운다. 안함은 長安(지금의 西安)의 大興善寺에 머무르면서 十勝의 秘法과 玄義를 배웠는데, 이는 당시 隨나라에서 성행한 天台智懿의 法華三昧思想으로 이해된다.

공부를 마친 안함은 605년 于闐國 승려 毘摩羅 등 인도출신 승려와 함께 귀국한다. 안함은 앞날을 예견하는 『讖書』 한 권을 지었는데,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第一 女主를 忉利天에 장사지낼 일은 왕명에 따라 狼山 남쪽에 선덕여왕릉을 모신 사실을 말한다. 이는 뒤에 문무왕이 왕릉 아래에 四天王寺를 조성하게 되는데, 일연이 지적한 것처럼 四天王天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불경에 언급된 것과 같다. 왕자가 고국에 돌아올 해는 金仁問의 귀환을 예언한 것으로 여겨진다. 大君의 盛名할 해는 삼국을 통일할 때를 말한 것이다.

일연은 『삼국유사』에 안함과 안홍에 대한 전기를 立傳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연이 다른 새로운 자료를 찾지 못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각훈은 안함이 인도 승려와 함께 불경을 번역한 이후, 인도로 불법을 공부하러 가는 신라 승려들이 많아진 사실에서 弘法을 펼친 聖人으로서 평가하였다.

또 『讖書』에 실린 내용이 모두 명확하게 맞아들은 안함의 預知力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를 미루어 각훈은 안함의 전기를 세웠다.

각훈이 안함전을 찬술한 의도는, 첫째, 高僧 安畝의 預知力을 통해 신라가 국가불교로 나아가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讖書』에 나타난 내용들은 仞利天王으로서의 선덕여왕과 護國, 그리고 삼국통일 등 모두 국가의 權威와 安危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또 모두 미래의 일로서 적확하게 맞아들었는데, 고승 安畝의 超能力으로 예견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고승의 출현은 신라가 불교를 보호하고 장려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불교의 위대성을 宣揚하는 한편으로, 국가를 위해서는 護法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안함이 인도승려와 함께 돌아온 뒤, 중국으로 가는 유학생들이 많아질 정도로 신라불교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를 중시한 각훈은 신라불교사에서 안함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신라에서는 下代 前期에 들어와 興輪寺 금당에 安畝를 비롯한 열 분의 聖人像를 모셔놓았다. 더욱 이들과 관련된 碑文과 傳記物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십성과 관련 하대 전기의 역사 서술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안함전」과 「안함비」의 내용을 통하여 신라 하대 전기 역사 서술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신라 하대 전기 史學史의 공백을 메우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더욱 그것이 覺訓에 의하여 다시 살아난 것 또한 의의가 크다.

【참고 문헌】

1. 저서

- 李炳薰 譯, 『海東高僧傳』, 乙酉文化社, 1975.
張輝玉, 『海東高僧傳研究』, 民族社, 1991.
정수일 역주,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학고재, 2004.

2. 연구 논문

- 金達鎮 譯, 「海東高僧傳」, 『韓國의 思想 大全集』2, 同和出版公社, 1972.
황패강, 「해동고승전연구」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金相鉉, 「해동고승전의 사학사적 성격」 『藍史 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高麗苑, 1984.
金炯佑, 「해동고승전에 대한 재검토」 『素軒 南都泳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太學社, 1984.
李基白, 「三國遺事の 篇目構成」 『佛敎와 諸科學』, 東國大 出版部, 1987 : 『한국 고전연구』, 일조각, 2004.
辛鍾遠, 「弘淸과 新羅佛國土說」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1992.
金相鉉, 「三國遺事の 歷史方法論的 考察」 『東洋學』23, 1993.
郭丞勳, 「新羅 下代 前期 興輪寺 金堂 十聖의 奉安과 彌勒下生信仰」 『韓國思想史學』11, 1998 : 『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 國學資料院, 2002.
김복순, 「수·당의 교체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43, 2000 : 『新思潮로서의 신라 불교와 왕권』, 경인문화사, 2008.
郭丞勳, 「新羅 下代 前期 高僧追慕碑의 建立」 『韓國古代史研究』25, 2002 : 『統一新羅時代의 政治變動과 佛敎』, 國學資料院, 2002.
곽승훈, 「『해동고승전』 범공전의 찬술」 『한국사학사학보』17, 2008.
곽승훈, 「『해동고승전』 범운전의 찬술」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2009.
곽승훈, 「『해동고승전』 아도전 연구」 『해양문화연구』4, 2010.
곽승훈, 「『해동고승전』 각덕·지명전 연구」 『한국학논총』34, 2010.
백미선, 「해동고승전을 통해 본 각훈의 고구려불교사 인식」 『한국사학사학보』23, 2011.

곽승훈, 「『海東高僧傳』 유학승 傳記 연구」 『한국고대사탐구』8, 2011.

곽승훈, 「신라 골품제사회의 정치변동과 불교」 『한국고대사탐구』15, 2013.

Abstract

A Study on Anhamjeon of Haedong Kosung Chon

Kwaak, Seung-hoon

Anhamjeon(安含傳) of Haedong Kosung Chon(『海東高僧傳』) was written by Gak Hun(覺訓) based on the biographical writings estimated to be Anhambi(『安含碑』) and Anhamjeon(『安含傳』).

Anham(安含) went to China for further study in 601 and studied there for five years. After returning with Indian Buddhist priests such as Kapimala(毘摩羅), he spread the Buddhism in the country. Since then, many Buddhist priests went to India to study the Buddhism. Gak Hun thus evaluated Anham as the saint that spread the Propagating Buddhism.

Anham wrote Chamseo(『讖書』) that predicted the future and contained content all related to the authority of the king and the safety of the country. Gak Hun thought highly of his power to foresee, saying that all the content of the book was accurate.

Gak Hun wrote Anhamjeon to grant the legitimacy of Silla becoming a Buddhist nation through the high priest's power to foresee. It exalted the greatness of Buddhism and also highlighted the need for the defense of the constitution for the country.

Ilyeon(一然) did not include biographies of Anham and Anhong(安弘) in his Samgukyusa(『三國遺事』) probably because he failed to obtain new materials. In that context, Gak Hun's compilation of Anhamjeon based on the content of Anhambi holds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historiography studies as well as in the understanding of Buddhist history of Silla.

Key Words : Haedong Kosung Chon(『海東高僧傳』), Anham(安舎), Anhong(安弘), Chamseo(『識書』), Samgukyusa(『三國遺事』), Anhambi(『安舎碑』)

논문 투고일 : 2014. 7. 23

심사 완료일 : 2014. 8. 10

게재 확정일 : 2014. 8. 11